



책 읽 기 와 글 쓰 기

리딩엠 둔산 Magazine

NO. 1

2016. 여름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4 아베스빌딩 4층
www.readingm.com

CONTENTS

교육안내 3p	커버스토리 8p	목적 수업 안내 21p
7월~9월 수업 안내	초6까지 독서습관 골든타임	리딩엠 목적수업 활용 TIP
리딩엠 프로그램 안내 4p	초등 색션 12p	원장기고 22p
여름방학 색깔특강	재원생 글쓰기 결과물	왜 책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인가?
주목받는 리딩엠 6p	교내외 글쓰기 수상작 17p	특별색션 24p
조선일보 주최 교육기업 대상 수상	김세진, 최민서	진로글쓰기-스포츠편석
커리큘럼 7p	중·고등 색션 18p	교사기고 26p
7월~9월 커리큘럼	재원생 글쓰기 결과물	나만의 스토리텔링 '컬럼'

리딩엠 표지 모델 - 주새길(삼천초6)



중3 자소서 특강 설명회

예약필수

중3

7/06(수) 오전

7/13(수) 오전

7/20(수) 오전

과학이든 인문이든 책임기와 글쓰기로 판가름 나더라

정독, 지속독, 다양독, 잠재독, 책임기와 글쓰기는
전문성 있는 리딩엠에서 성공하세요.

중3(예비고1) 자기소개서 특강 설명회

- * 장 소 : 리딩엠 (아베스빌딩 4층)
- * 대 상 : 중3학부모님 (10명 이내/예약필수)
- * 주 제
 -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반 운영계획과 노하우
 - 진학성공의 핵심 요소

리딩엠의
독보적인
전문적인 힘

- ▶ 필독도서 대출 시스템(초중고 필독도서 12,000권 보유) ▶ 책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매주 수업도서 1권 + 담당교사 추천도서 1권 + 본인 선택도서 2권 대출 가능
- ▶ 리딩엠 특허등록 독서이력진단과 교사추천 도서 프로그램 (편독방지와 잠재독 실현)
- ▶ 독서이력진단과 관리(학교생활기록부)(교육청 독서교육지원시스템)
- ▶ 창의적, 차별화된 글쓰기 완성, 학교 수행평가 및 교내외 대회

학부모 설명회

예약필수

초등부/중등부

7/07(목) 7/14(목)

7/08(금) 7/15(금)

* 장 소 : 리딩엠 (아베스빌딩 4층)

* 대 상 : 초등(초1~초6 초등 학부모님)
중등(중1~중3 학부모님)
(10명 이내 / 예약필수)

* 주 제

- 리딩엠 M플러스 정규프로그램과 시스템 소개
- 리딩엠 목적수업 안내
-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 설명회 시간 : 오전시간 (AM 10:00)

책임기와 글쓰기 전문
리딩엠이 펴낸
베스트셀러를
추천합니다.



같은 책 다른 생각

~정독, 지속독, 다양독, 잠재독~

한국일보, 뉴스에 보도된 바로 그 책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이 담긴 여교생들의 독서 활동
인문, 과학, 사회, 문화예술 등 두 자리가 꾸준히 읽고 생각을 나누며 쓴
독서록을 통해 정독 여교생이자 독독 하는 시각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대 학생 13명이 책임기의 모든 것을 전하다.

초등시기 나는 이렇게 책을 읽었다

부록에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필독서 목록이 있습니다.
연분보도 - EBS부도 60분 조선 동아 등 다수언론에서 소개
도서구입 - 인터넷 YES24 *** 교보문고 등에서 주문가능



학교수업 전에
미리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하는 교재
초등학생을 위한
미래내국어(1학년~6학년)
도서구입 - 인터넷 YES24 *** 등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서 구입



책 읽 기 와 글 쓰 기
리딩엠

DPRH(독서이력진단검사)와 RQ지수 - 국내최초 특허등록

교육상담 **042)477-139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4 아베스빌딩 4층

리딩엠 공지사항

- ▶ 리딩엠은 방학휴원이 없으며, 설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 성탄절만 휴원합니다.
- ▶ 리딩엠은 1주 1회 수업이며 지속독을 위해 7월 5주차에도 정규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 ▶ 방학중에는 오전 10시부터 개방되므로 학생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 ▶ 가정의 휴가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때, 휴가일정 전후로 보충이 진행됩니다.
- ▶ 대출도서는 꼭 읽은 후 반납 부탁드립니다, 신규도서는 매월 안내판에 공지됩니다.
- ▶ 원비수납은 선납으로 매월 23일부터~말일까지 익월분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 스마트폰으로 RAMS를 바탕화면에 설치해 학생의 독서상황, 수업상황 등 실시간 확인가능합니다.

2016년 7월 ~ 9월 수업 안내

교육일정

7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1	2	3
2주	4	5	6	7	8	9	10
3주	11	12	13	14	15	16	17
4주	18	19	20	21	22	23	24
5주	25	26	27	28	29	30	31

8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1	2	3	4	5	6	7
2주	8	9	10	11	12	13	14
3주	15	16	17	18	19	20	21
4주	22	23	24	25	26	27	28
5주	29	30	31				

9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8/29	8/30	8/31	1	2	3	4
2주	5	6	7	8	9	10	11
3주	12	13	14	15	16	17	18
4주	19	20	21	22	23	24	25
5주	26	27	28	29	30		

리딩엠 일정

■ 설명회

- 초중등설명회 : 매주 목, 금 / 오전10시
(7/7, 7/8, 7/14, 7/15)
- 자기소개서 설명회 : 매주 수 / 오전10시
(7/6, 7/13, 7/20)

[학교일정] (초)(중)여름방학식 : 7월4주차

■ 여름방학 <리딩엠 색깔특강>

- ▶ 특강기간 : (초) 7월26일부터 3주간
(중) 7월26일부터 3주간
- ▶ 등록마감 : 7월25일(월)까지
- ▶ 수업횟수 : 총6회 (주2회)

■ 목적수업 (상시 상담접수)

- 탐구보고서 작성하기
- (중)독서감상문

[학교일정]

- (초)(중)8월4주차부터 개학
- (초)임원선거, 학생탐구발표대회

■ 여름방학 색깔특강 과목

- (초) 책임기와 글쓰기 첫걸음
- (초)(중) 한국사특강, 세계사특강
- (초)(중) 철학 특강
- (초)(중)자기소개서 특강
- * 상세 내용은 5면 참조

■ 중점지도사항

- 깊이 있는 독서하기
- 생각하는 힘 키우기
-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해내기
- 초등 생활문 쓰기
- 중등 국어 내신 준비



○ 스마트 RAMS 솔루션

전문화된 솔루션을 자체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학생의 독서활동, 글쓰기를 스마트폰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내 손안에 나만의 독서 길잡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쉽게 확인한다

■ 사용방법

1. 스마트폰용 램스 URL <http://dunsanrams.readingm.com> 을 클릭해주세요.
2. 보내드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주세요.
3. 스마트폰에서 <홈화면추가>를 선택해 스마트폰의 홈화면(바탕화면)에 보이게 해 주후 클릭만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메인화면

▲미리보기

▲세부 컨텐츠

책읽기와 글쓰기로 전문화된 리딩앰의 모든 노하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구 분	내 용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앰	■ 목동,대치,서초,인천송도,분당,대전둔산에서 운영중 ■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최상의 학습능력 완성 ■ 2016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교육기업 대상' 수상 ■ 독서이력진단과 분석방법(특허획득) ■ 도서출판 <초등시기 나는 이렇게 책을 읽었다> 서울대생 13인의 초등시기 독서이력 (YES 24 주간판매 1위도서) ■ 용인외고,민사고,한성과학고 등 초등학교 때부터 5년 이상 다닌 재원생의 고등진학 실적
M베이직 1주1회 1시간/월 필독서 2권 ➔ 새롭게 추가되는 수업임 ▶앞으로 어휘,배경지식,어법, 생각해내기, 말과 글로 표현하기,문제해결형 글쓰기 등이 강화되며, 원고지 글쓰기가 이뤄짐	■ 2주에 걸쳐 필독수업도서 1권을 단계적,체계적 지도 ■ 1주차에는 독서확인+어휘어법+표현과 진술+생각쓰기 ■ 2주차에는 토론+글쓰기+첨삭 진행 ■ 수업도서·추천도서·선택도서 등 주 4권이내 대출 ■ 학교 수행활동,서술논술형 문제해결 능력 갖추도록 지도 ■ 매주 글쓰기와 첨삭진행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극대화 ■ 읽은 책은 시계열화해 독서이력분석관리와 피드백 진행
M플러스 (초)1주1회 2시간/월수업도서4권,5권 (중)1주1회 2.5시간/월수업도서4권,5권 *주제별 신문칼럼수업 병행 ➔ 현재 진행중인 수업임.	■ 자기주도로 책을 읽는 습관을 갖추도록 지도 ■ 리딩앰에서 수업도서 내용과 토론·글쓰기·첨삭 진행 ■ 1교시에는 <책글활동지 워크북>으로 수업 진행 ■ 2교시에는 생각나누기 또는 토론과 글쓰기,첨삭 진행 ■ 수업도서·추천도서·선택도서 등 주 4권이내 대출 ■ 학교 수행활동,서술논술형 문제해결 능력 갖추도록 지도 ■ 매주 글쓰기와 첨삭진행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극대화 ■ 읽은 책은 시계열화해 독서이력분석관리와 피드백 진행
목적수업 프로그램_별도원비	■ 학교대회수행활동·교외대회 등 요청수업 진행
초등 JT반 1년이상 정규반 학생중 구성 우수한 학생들로 모둠 구성	■ 재원생 중 책읽기와 글쓰기 우수학생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수업 진행 ■ 수준높은 도서읽기와 다양한 활동수업을 바탕으로 최고의 인재 양성
중등 다빈치반 1년 이상 정규반 학생 중 구성 과학인문 융합 커리큘럼	■ <과학중심+인문학>커리큘럼으로 진행 ■ 과학고·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희망자 대상수업
독서이력진단과 분석관리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주제분류에 따른 독서이력관리 ■ 문학·비문학, 과학인문·사회·문화·예술체육으로 주제분류
RAMS 시스템 업로드(초중) 학교생활기록부 등재(중등)	■ 학생들의 도서에 대한 글쓰기 결과물(독서감상문 등) 유지관리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1년 2차례 등재될 수 있도록 지도
리딩앰 RAMS 솔루션	■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읽은 책, 대출도서, 평가결과, 활동결과, 진단결과
리딩앰매거진	■ 글쓰기 등 리딩앰 수업 결과물 등 수록 ■ 학생별로 번갈아가며 원고 수록
<초등학생을 위한 미래내 국어>	■ 초등학생의 기본문장과 표현능력 등 강화교재 ■ 교과서 수록 어휘,문장,어법,띄어쓰기,맞춤법,관용어(속담,격언),문장,표현 지도

여름방학 특강 <리딩옴 색깔특강>

▶ 여름방학 색깔특강 수업 기간 : [초등] 2016년 7월 26일(화) ~ 8월 13(토)까지 3주간

[중등] 2016년 7월 26일(화) ~ 8월 13(토)까지 3주간

▶ 여름방학 색깔특강 신청 마감 : 2016년 7월 25일(월)까지 ※ 정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특강	대상	반구성	수업시간	개강	교재
초등	책임기와 글쓰기 첫걸음	초1~2	수토반 : 오후 1시	주 2회 2시간	화목반 : 7월 26일(화)	책임기와 글쓰기 첫걸음 (리딩옴)
	초등 한국사	초4~5	화목반 : 오전 10시 오후 12시 30분			한국사편지 1권~5권 (책과 함께 어린이) 초등 한국사 (리딩옴)
	초등 세계사	초5~6	수금반 : 오전 10시			세계사 이야기 (늘푸른 아이들) 초등 세계사 (리딩옴)
	초등 철학, 나를 찾고 아는 힘	초3~4	화목반 : 오후 2시 30분			철학, 나를 찾고 나를 아는 힘 (리딩옴)
	자기소개서와 글쓰기(국제중)	초3~6	협의			수업노트 및 자료 바인더 (리딩옴)
중등	중등 한국사	중1~2	화목반 :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수금반 : 오후 4시	주 2회 2.5시간	수토·수목반 : 7월 27일(수)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휴머니스트) 중등 한국사 (리딩옴)
	중등 세계사	중1~2	화목반 : 오후 4시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휴머니스트) 중등 한국사 (리딩옴)
	중등 철학으로 주인공되기	중1~2	수금반 : 오후 1시 30분			철학, 내 삶은 내가 주인 (리딩옴)
	인문학과 친해지기	중2~3	협의			인문학과 친해지기 (리딩옴)
	자기소개서와 면접 (특목고와 자사고 준비)	중2~3	협의			수업노트 및 자료 바인더 (리딩옴 제공)

초등부 여름방학 색깔특강

책임기와 글쓰기 첫걸음 : 집중력을 갖고, 책을 정독해서 읽은 후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글쓰기로 연결시켜 책임기와 글쓰기의 기본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

초등 한국사 :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파편적인 한국사 지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내용도 함께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

초등 세계사 : 인류의 기원에서 근현대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의 흐름과 지식을 정리하고 시대적 배경 등을 읽어내며 깊이 있는 학습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

초등 철학, 나를 찾고 아는 힘 : 자신의 존재를 자신, 타인의 시선에서 파악해 나감으로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아내 학습과 생활면에서 자신감과 자기주도성의 힘을 갖고자 하는 학생

자기소개서와 글쓰기 (국제중 준비) : 국제중 진학을 준비하려는 초등학생

중등부 여름방학 색깔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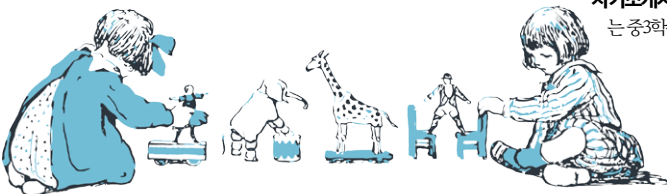
중등 한국사 :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를 읽어나가면서 책의 내용과 문제는 행화된 워크북을 통해 한국사의 흐름과 맥락 뿐 아니라,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의 배경지식과 통찰력을 키우면서 한국사에 대한 지식과 교과내신을 동시에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

중등 세계사 : 고대문명, 중세, 근대 등 시기별로 세계사의 흐름과 맥락, 배경 지식, 시각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교과내신을 동시에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

중등 철학으로 주인공되기 : 철학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학습과 생활면에서 자기주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학생

인문학과 친해지기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작들을 읽고 토의해보면서 읽기 능력과 동시에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폭넓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학생

자기소개서와 면접 (특목고와 자사고 준비) : 외고와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려는 중3학생



2016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선정한 교육기업대상_어린이와 청소년 독서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리딩엠_어린이와 청소년 독서활동부문 대상 수상

체계적 독서활동 프로그램 호평

어린이·청소년 독서활동 부문



㈜리딩엠이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활동 부문에서 소비자가 뽑은 2016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에 선정됐다.

리딩엠의 최대 경쟁력은 체계적인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도교사 등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췄다. 각 교육센터에 1만권 내외의 필독서를 구비한 것도 장점이다. 학교활동·진학과 연계할 수 있는 추천도서·선택도서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학생이 독서와 연계된 교내 활동 준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목적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리딩엠은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독서이력진단과 분석시스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학생들의 독서활동 결과물을 분기별로 모아 발행하는 리



딩엠매거진 ▲학생의 독서활동 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RAMS 솔루션 등도 타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다. 또한 올해는 황종일 리딩엠 대표가 교육방법론과 지도 경험을 전수하는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지도교사 양성 과정’도 시작했다.

리딩엠은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선도하며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룰 것이다.

●문의: (02)537-2248

www.readingm.com

오선영 조선에듀 기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7월	1학년 손님 (윤재민 / 느림보)	바늘 부부, 모험을 떠나다 (도바시 에츠코 / 시공주니어)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 비룡소)	기차 할머니 (파울 마르 / 책나눔)
	2학년 머시의 신나는 토요일 (케이트 디카밀로 / 비룡소)	내 생애 최고의 캠핑 (수지 모건스턴 / 크레용하우스)	가방 속 책 한 권 (버지니아 리드 에스코발 / 도토리숲)	절뚝이와 움살 (김준옥 / 청어람미디어)
	3학년 문화재에 얽힌 8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배수원 / 작가정신)	관혼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 (우리누리 / 주니어중앙)	경복궁에서의 왕의 하루 (정동말굽 / 문학동네어린이)	에벌레가 에벌레를 먹어요 (이상권 / 웅진주니어)
	4학년 사장에 간혹강동 경제의 역사를 배우다 (이명애 / 파란자전거)	제키의 지구여행 (문선이 / 길벗어린이)	아이들의 못말리는 서커스 (맥나우튼 / 을파소)	이만하면 나도 꼬마사업가 (어린이 문화진흥회 / 삼성당)
	5학년 삼룩의 거미줄 (엘원 브룩스 화이트 / 시공주니어)	한국사 편지 4 (전반부) (박은봉 / 책과 함께 어린이)	한국사 편지 4 (후반부) (박은봉 / 책과 함께 어린이)	노마의 발견 어린이 동양철학 공작가로서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 해냄주니어)
	6학년 어린이 외교관, 중국에 가다 (김용수 / 쓰인돌어린이)	세계사 이야기 1 (전반부) (초등교사모임 / 늘푸른아이들)	세계사 이야기 1 (후반부) (초등교사모임 / 늘푸른아이들)	미국이야기 (손세호 / 아이세움)
	중1학년 그 많은 상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 웅진주니어)	14살, 그때 꿈이 나를 움직였다 (최정화 / 다산에듀)	논리의 미궁을 탈출하라 (좌백 / 마리북스)	소크라테스를 구출하라 (좌백 / 마리북스)
	중2학년 GO (가네키로 카즈키 / 북폴리오)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 문학과 지성사)	철학우화 (류관홍 / 베이직북스)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라이너 에를링어 / 비룡소)
	중3학년 리버보이 (팀 보울러 / 놀)	세 열간이 (채탄 바짓 / 북스퀘어)	장자 사기를 당하다 (김종옥 / 탐)	플라톤 영화관에 가다 (조광재 / 탐)
	고등부 생각의 지도 (리처드 니스렛 / 김영사)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 (니콜라우스 피퍼 / 비룡소)	대입 논술 2강 (리딩오피 / 리딩오피)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 / 까치)
8월	1학년 내 열룩무늬 뽀뽀니 (선안나 / 미세기)	까만 나라 노란 추장 (강무송 / 웅진주니어)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권윤덕 / 창비)	몰라쟁이 엄마 (이태준 / 우리교육)
	2학년 색깔없는 세상은 너무 심심해 (공주영 / 토도북)	아름다운 가차사건 (채인선 / 한울림어린이)	거꾸로 나라 임금님 (이준원 / 삼성당)	다섯 손가락 이야기 (카미유 로랑스 / 산하)
	3학년 마법의 빨간 립스틱 (공지희 / 비룡소)	그림 도둑 준보 (오승희 / 낮은산)	검정 연필 선생님 (김리리 / 창비)	영동이 소피의 못말리는 패션 (수지 모건스턴 / 비룡소)
	4학년 생각을 뒤집는 논리 세상 (양승형 / 한솔수북)	광고의 비밀 (김현주 / 미래아이)	어린이를 위한 정리의란 무엇인가 (안미란 / 주니어김영사)	포마 정치가 마르그리트 (비르지니 루 / 작은책방)
	5학년 한국사 편지 5 (전반부) (박은봉 / 책과 함께 어린이)	한국사 편지 5 (후반부) (박은봉 / 책과 함께 어린이)	코끼리 사쿠라 (김향 / 창비)	아빠 뱀이 뭐예요? (우리누리 / 창비)
	6학년 세계사 이야기 2 (전반부) (초등교사모임 / 늘푸른아이들)	세계사 이야기 2 (후반부) (초등교사모임 / 늘푸른아이들)	대륙을 바라보는 삼나무 일본이야기 (김영희 / 아이세움)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이희수 / 청솔출판사)
	중1학년 사씨남정기 (김만경 / 영림카디널)	박문수전 (이동원 / 영림카디널)	임경업전 (고정옥 / 영림카디널)	홍길동전 (허균 / 영림카디널)
	중2학년 어떤 술거의 죽음 (조정래 / 다림)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 문학과 지성사)	비오는 날 (손창섭 / 문학과 지성사)	원미동사람들 (양귀자 / 쓰다)
	중3학년 삼국사기 (김부식 / 타임기획)	남한산성 (김훈 / 학교교육)	손님 (황석영 / 창비)	허수아비춤 (조정래 / 해냄출판사)
	고등부 스키너의 심리학자 (로렌 슬레이터 / 에코의 서재)	과학 한 잔 하실래요? (강석기 / AMD)	그리스인 조르바 (카잔카치스 / 열린책들)	대입 논술 3강 (리딩오피 / 리딩오피)
9월	1학년 쇠를 먹는 불가사리 (정희섭 / 길벗어린이)	버리데기 (박윤규 / 시공주니어)	술이의 추석이야기 (이억배 / 길벗어린이)	우렁이 각시 (오승민 그림 / 내버라랜드)
	2학년 화요일의 두꺼비 (리셀 에릭스 / 사계절)	겨자씨의 꿈 (조성자 / 현안사)	풍년 고드름 (이준원 / 도서출판 문원)	개구쟁이 노마와 현덕 동화나라 (현덕 / 웅진주니어)
	3학년 총을 거꾸로 쓴 자라프카디오 (셀 실버스타인 / 시공주니어)	신데렐라는 시계를 못 본대 (고자현 / 동아시아인스)	제트기만큼 빠른 개 길들이기 (제레미 스트롱 / 웅진닷컴)	조커 학교가 싫을 때 쓰는 카드 (수지 모건스턴 / 문학과 지성사)
	4학년 아기 도깨비와 오토제국 (이현주 / 웅진주니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 다림)	서로 달라서 아름다운 세상 (노지영 외 / 휴이닝)	안네의 일기 (안네프랑크 / 대교출판)
	5학년 연암 박지원 (배봉기 / 도서출판 산하)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재퍼 / 을파소)	이야기 수학 (한경희 / 다림)	마사코의 질문 (손연자 / 푸른책들)
	6학년 트로이 전쟁(비룡소 클래식8) (메드라익 폴립 / 비룡소)	돈키호테 (마구엘 세르반테스 / 지식의 숲)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 효리원)	셈다사 베레미즈의 모험 (말바타한 / 경문사)
	중1학년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2학년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3학년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고등부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중간시험 대비 (리딩오피 / 리딩오피)

초6까지 독서습관 골든 타임, 사고력 높혀야

리딩앰매거진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조선일보에 실리며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끌었던 특집기사 <읽기혁명>을 실어드립니다.

6세 때 ‘딥 러닝’ 뇌 거의 완성… 선진국, 어릴 때부터 독서운동

(deep learning)

12세까지 독서 습관 골든타임

지난 5일 오전 영국 런던 레인즈프록 동네 도서관. 머리가 하얗게 센 잉가 브로켓(Brockett)씨가 그리스 신화 책을 한 권 뽑아들더니 여섯 살짜리 소녀 미나(Minna)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한 뒤 8년째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했다.

영국뿐 아니다. 미국에선 신생아부터 11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는 기본(Reading is Fundamental)’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책을 선물하거나 책을 읽어준다. 프랑스에서도 0~3세 영·유아와 가족들 대상으로 책 읽기 요령을 알려주는 ‘첫 페이지(Premieres Pages)’ 등 독서 교육 활동이 풍성하다. 주요 선진국에선 ‘독서 전쟁’이라 불릴 만큼 어린아이들이 책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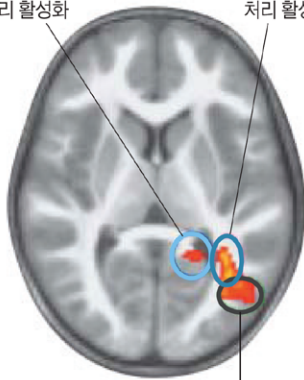
뇌의학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진국의 영·유아와 어린이 대상 독서 교육을 두고 인간의 뇌를 모방해 탄생한 알파고(AlphaGo)의 딥 러닝(deep learning·인공 기계학습)을 떠올린다. 어린 시절 책 읽어 주기와 책 읽기가 인공지능의 딥 러닝과 정처럼 인간의 뇌를 자극해 상상력과 창의성이란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2세까지가 독서 습관 들일 ‘골든 타임’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중요한 것은 영·유아 때 인간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생체학자 스카몬(Scammon)의 성장곡선에 따르면 갓난아기의 두뇌 중량은 성인의 25% 수준이지만 1세가 되면 50%, 3세 때 75%, 6세까지 성인 중량의 90%에 도달한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결정적인 시기’라 부른다. 인공지능이 딥 러닝하듯 5~6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책을 접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책 읽어줬을 때 3~5세 유아의 뇌 사진

- ① 두정: 시각 이미지 처리 활성화 ② 측두: 연합·의미 처리 활성화



- ③ 후두엽: 시각 연합·의미 처리 활성화

신시내티 어린이병원의 존 휴튼 박사는 부모가 3~5세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을 때 아이들의 청각과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좌뇌 속 일정한 부위(두정·측두·후두엽)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책을 보지 않고 부모의 책 읽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시각 관련 뇌 부위가 활성화됐다는 뜻으로,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상상하는 뇌 활성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영·유아들이 인간판 ‘딥 러닝’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미국에선 심지어 “갓난아기에게도 책을 읽어줘야 한다”는 주장(미국 소아과학회)까지 나온다. 미국 소아과학자 페리클라스는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더 많은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고 결국 뇌를 창의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에선 아기를 출산한 뒤 산모의 가정 방문하는 간호사를 통해 책 선물을 해주는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이 유명하고, 미국에서도 미국판 ‘북스타트’ 운동인 ‘ROR(Reach Out and Read)’ 운동을 펼친다. 미국 보스턴의대 소아과 의사들이 시작한 이 캠페인은 만 6개월부터 5세까지 소아과를 찾은 아이들에게 단계

별로 알맞은 책을 골라주고 부모에게 책 읽어주는 법을 설명해준 뒤 책을 나눠주는 것이다.

영·유아기뿐 아니라 전(全) 연령에 걸쳐 독서는 중요하지만, 특히 뇌의 외형적 발달이 거의 완성돼 성인과 같은 수준이 되는 만 12세 무렵(스카몬 성장곡선)까지는 독서 습관을 꼭 들여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심영면 삼각산초교 교장(책읽어주기운동본부 이사장)은 “초등학생 때까지 책을 많이 접하지 못하면, 어휘력이 달려 책을 더 멀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과 경쟁할 세대들, 독서가 필수

최근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마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간은 독서와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인간 고유의 딥 러닝을 해야 미래에 살아남을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 대표적 뇌과학자 김대식 카이스트(KAIST) 전기·전자공학 교수는 “현재 초·중학교 학생들은 미래에 어쩌면 기계와 경쟁해야 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들을 인공지능이 도맡을 수 없는 창의적·감성적 분야의 인재로 키우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알파고가 인간과 바둑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받아들이기 방대한 정보를 흡수한 한 개 아니라 스스로 수많은 가상 대국을 펼쳐보는 ‘셀프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이라며 “인간은 인공지능이 가상 대국하듯 고전(古典) 등 책 읽기를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사고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일곤 경북대 컴퓨터학부 교수 역시 “인간이 인공지능에 비해 탁월한 것은 시각뿐 아니라 오감을 통해 방대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독서를 통한 뇌 발달이 필수”라고 말했다.

런던=장일현 특파원, 김성모·박세미 기자

책·신문 같이 읽으면... 수능 국·영·수 최대 34점 높아

(책만 읽은 학생보다)

중3·고3 추적 조사해보니... “신문 읽기가 수능 성적 향상시켜”

신문 구독 여부에 따른 수능 점수 차이

	신문 미구독 등급	신문 구독 등급	등급차	표준점수 (환산) 차이
국어	5.55	5.13	0.42	약 4점
수학	5.52	5.15	0.37	약 5점
영어	5.64	5.13	0.51	약 6점

책만 읽은 학생과 책·신문 동시에 읽은 학생 간 수능 점수 차이

	책만 읽은 학생 등급	책·신문 동시에 읽은 학생 등급	표준점수 (환산) 차이
국어	5.22	4.15	약 12점
수학	5.16	4.36	약 10점
영어	5.23	4.16	약 12점

※2004년 당시 중3이었던 2000명의 2008학년도 수능 추적조사 결과. 수능성적이 좋으면 등급은 낮고, 표준점수는 높게 나타난다.

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여중 2학년 4반 국어 시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30명의 학생들이 책상 위에 일제히 신문을 펼쳤다. 1면 헤드라인부터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학생, 자신이 관심 있는 스포츠면부터 펼치는 학생, 뒷면 사설을 형광펜으로 줄 쳐가며 읽는 학생...

국어 과목 강용철 교사가 “신문에서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하나씩 골라보라”고 주문하자, 박예남(14)양은 정치면의 ‘1발만 쏜다면 북한 미사일, 알고 보니 3발’이라는 기사를 골랐다. 박양은 “꿈이 군인이자 국방이나 외교 기사에 눈길이 간다”고 했다.

경희여중은 2005년부터 교과 수업에 신문을 활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논술·신문 동아리 학생들만 대상이었지만, 학생들이 공부 습관과 발표력에 도움이 되자 2010년부터 국어·사회 등 정규 수업 때 신문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흥간 소음으로 아파트 이웃끼리 갈등을 겪는 단편소설 ‘소음 공해’를 공부할 때, ‘쫓긴 눈 치우다 이웃 간 주먹다짐’이란 신문 기사를 먼저 보여 주고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식이다.

◇세화여고·경희여중 신문 교육 효과

청소년 사이 스마트폰 등을 통한 정보 유통이 유행이지만, 신문 읽기가 학생의 사고력과 학력을 끌어올리는 동력(動力)이라는 것을 잘 아는 학교들은 일찍부터 ‘신문 읽기’ 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 세화여고는 1998년부터 ‘아침 신문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학교 1·2학년 학생 약 800여명은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 30분간 모두 신문을 읽는다. “그 시간에 영어 단어나 외우지 무

슨 신문 읽기냐” 라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소리는 신문 칼럼을 요약하고 이를 활용한 글쓰기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원유신 세화여고 교장은 “신문을 읽으면 학생들의 독해력은 물론 논리력,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진로에 맞춰 기사를 찾아 읽기 때문에 대학입시는 물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도움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세화여고 3학년 학생들이 본 모의고사 국어영역 1등급 비율은 30.6%로, 2년 전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본 모의고사 1등급 비율(27.2%)보다 3.4%포인트 올랐다.

**세화여고, 수업前 칼럼 읽고 작문
모의고사 국어 1등급 3.4%p 올라**

**경희여중, 11년째 신문 활용 수업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1%이하**

**학원·과의 없이 명문대 진학 등
신문 읽기가 ‘대입 사다리’ 역할도**

11년째 신문 활용 수업을 진행 중인 경희여중은 나옴 학생이 없는 학교로 유명하다. 매년 치르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희여중의 국어·영어·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0~1%대로, 서울 중3 평균(4.3%)보다 훨씬 낮다.

◇신문 읽기의 사다리 효과

‘신문 읽기’를 통해 사교육 없이 명문대에 진학한 경우도 적지 않다. 연세대 2학년인 장두원(23)씨는 어머니 송재연씨가 홀로 생계를 꾸려 학창 시절 사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고교 시절 내내 내신 1등급을 놓치지 않았다. 장씨는 “어머니가 아침에 일을 나가시면서 좋았던 신문 기사를 올려 냉장고나 벽에 붙여주셨다”며 “매일 신문 칼럼을 읽고 내 생각을 요약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스스로 공부하는 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신문 읽기’는 부모 학력이나 소득이 낮은 학생의 학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능원이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 2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생 중 신문을 구독하는 학생의 수능 성적은 비구독 학생보다 전 과목에서 높았다. 가구 월 소득이 중산층(월 200만~400만원)인 학생 중 신문을 구독하는 학생의 수능 성적도 비구독 학생보다 모든 과목에서 높았다.

일부 학력·소득 구간에서는 신문 읽기의 ‘사다리 현상’도 나타났다. 예컨대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면서 신문을 구독하는 학생의 수능 성적(수학)은 대졸 어머니 밑에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학생보다 0.21등급(표준점수 환산 2점) 높았다.

채창균 직능원 선임 연구위원은 “어려서부터 신문과 책을 동시에 꾸준히 읽은 학생의 수능 성적(국·영·수 총합)이 책만 읽은 학생보다 최대 34점 높았다”며 “자녀에게 책과 신문을 꾸준히 읽도록 하는 것이 사교육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미·정경화 기자

책 많이 읽은 학생, 성취도 높아... 어휘력, 독해력, 사고력 향상, 글쓰기로 마무리 필요해

리딩옴매거진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조선일보에 실리며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끌었던 특집기사 <읽기혁명>을 실어드립니다.

“책 많이 읽은 학생... ‘괜찮은 일자리’ 얻은 비율 20%p 높았다”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직능원, 12년간 추적 조사

‘더 많이 읽으면 더 많이 알게 된다→꼭 똑하면 학력도 높아진다→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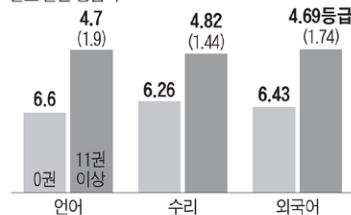
읽기 교육을 강조한 짐 트렐리즈(Tre-lease)가 저서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에서 펼친 주장이다. 이는 2004년 당시 국내 중3 학생들이 대입에서 어떤 점수를 얻고 어떤 직장을 얻었는지 12년째 추적 조사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중학생 때 다독(多讀)한 학생들은 과목별 수능 표준점수(환산치)가 최고 22점 뛰었고, 대기업·공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비율이 20%포인트 높았다. 또 학창 시절 책을 자주 손에 쥐었던 학생은 훗날 직장에 들어간 후 독서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200만원 많은 연봉을 받았다.

◇문학책 많이 읽은 학생이 수학 성적도 좋아

직능원이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생 2000명의 중학 재학 시절 독서량을 조사했다. 당시 3분의 1(633명, 31.7%)은 ‘11권 이상 문학책을 읽었다’고 했고, 10분의 1(200명, 10%)은 ‘한 권도 안 읽었다’고 했다. 이랬던 두 그룹의 대입 점수 차는 3년 뒤 명확해졌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 문학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문학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보다 국어·영어·수학 과목 평균 등급이 1.4~1.9등급 높았다. 2008학년도 수능은 표준점수 없이 1~9등급만 표시되는 ‘등급제 수능’으로, 국어는 1.9등급(표준점수 환산 때 22점), 영어 1.7등급(20점), 수학 1.4등급(18~19점) 높은 것이다. 국어 과목뿐 아니라 수학·영어 성적까지 독서량과 비례한 것이

중학생 때 독서량과 수능 성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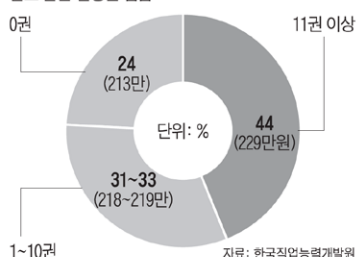
괄호 안은 등급차



※2004년 당시 중3 2000명 조사, 수능은 2008학년도, 독서량은 중학교 3년간 읽은 문학 서적

고교 재학시 교양 서적 독서량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비율

괄호 안은 월평균 임금



단위: %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교 때 책 11권 이상 읽은 학생 ‘0권 학생’보다 연봉 200만원 많아

美 대학연구팀 “일주일에 30분만 자녀에 책을 더 읽어주면 자녀의 연봉 5000달러 올라”

다. 직능원은 “문학책을 많이 읽는 것은 수학·영어 등 다른 과목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꾸준한 독서 습관은 개개인의 경쟁력을 키워 훗날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비율

도 크게 올랐다. 직능원은 2004년 고3 학생들에게 교양 서적과 문학 서적을 고1~3 사이 각각 몇 권씩 읽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이들이 2014년 취업했을 때 어떤 직장을 얻었고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다. 그 결과 교양 서적을 ‘11권 이상 읽었다’고 한 학생은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기업의 정규직’ 등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44%였다. ‘0권’이었던 학생(24%)보다 20%포인트 높았다.

◇“하루 30분 책 읽기가 후에 자녀 연봉 5000달러 올려”

이는 임금 격차로도 연결됐다. 고교 때 교양 서적을 11권 이상 읽었던 학생이 현재 취업 상태에서 받는 월평균 임금은 229만원이었고, ‘0권’이었던 학생은 213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책을 많이 읽은 결과가 매달 16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192만원 차이를 벌렸다는 얘기다.

외국에도 다독이 고임금으로 연결되는 것을 실증하는 연구가 있다. 미국 브리검 영(Brigham Young) 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 투자 효과’ 논문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주일에 30분 정도 더 책을 읽어주면 자녀의 연봉이 5000달러(약 600만원) 정도 오른다고 나타났다. 미국의 청소년 추적 연구 데이터(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를 활용한 연구 결과다.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은 “어린 자녀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면 성인이 되어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실증적 연구가 나온 만큼, 국가를 떠나 개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독서를 올리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독서의 힘... 부모의 학력·소득 격차도 극복

책 많이 읽은 저소득층 자녀
독서 안한 중산층 자녀보다
수능점수 10~20점 더 받아

독서는 개인의 성취를 뛰어넘어 소득 양극화 시대에 사회적 간막이를 뛰어넘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 부모가 잘살든 그렇지 않든, 부모의 학력이 높든 그렇지 않든, 책을 많이 읽을수록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능원이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현재 만 27세)을 추적 조사한 결과, 독서가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학력과 소득 차를 뛰어넘었다. 수능 성적과 독서량이 부모 고소득의 영향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독서량과 수능 성적 관계를 부모 학력과 소득 수준으로 쪼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독서는 계층을 관통하는 '힘'이자 계층 상승을 이끄는 '사다리'였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정(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독서량이 많은(3년간 문학책 11권 이상 읽음) 학생의 경우, 부모 소득이 월 200만~400만원이면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보다 수능 등급이 국어 1.71등급, 수학 0.96등급, 영어 1.14등급 높았다. 표준점수로 추정하면 적게는 10점에서 많게 20점 정도 차이가 나

부모 가난해도 책 많이 읽으면 수능 성적 올라(표준점수 기준)

200만원미만 (부모 월소득)	언어		수리		외국어	
	0권	11권 이상	0권	11권 이상	0권	11권 이상
	79.32	95.93	92.51	91.92	83.70	90.54
200만~400 만원 미만	언어		수리		외국어	
	0권	11권 이상	0권	11권 이상	0권	11권 이상
	80.32	102.48	85.56	99.03	81.91	97.91
400만원 이상	언어		수리		외국어	
	0권	11권 이상	0권	11권 이상	0권	11권 이상
	91.23	107.82	97.42	104.68	95.77	106.68

※2004년 당시 고3 400명 조사, 수능은 2005학년도. 독서량은 고교 3년간 읽은 문학 서적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는 것이다. 다독(多讀)의 힘은 부모의 학력 격차도 극복했다. 어머니가 고졸 이하면서 문학책을 많이 읽은 학생의 수능 등급(국어)은 대졸 어머니 밑에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학생보다 1.57등급, 표준점수로는 약 18점 정도 높았다.

2004년 당시 고3이었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당시 고3이 대입을 치른 2005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라 문학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독서를 안 한 학생보다 수능 국어 점수가 약 15.61점 높았다.

외국 연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 한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들이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에머리·척센트미하이는 '계층 상승에서 문화적 역할 모델의 사회화 영향

보고서에서 알코올중독 부모·한부모·빈곤 등 열악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교수가 된 15명과 노동자가 된 15명을 비교한 결과 대학교수가 된 이들은 어릴 때 더 많은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벤 카슨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전과목 열등생이었다. 아버지가 가솔해 어머니가 생활비를 벌러 나갔고, 벤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매주 책 2권씩 읽고 주말에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고, 그때부터 벤은 도서관에 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 자연, 과학에 관한 책부터 골라 읽기 시작했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벤의 독해력과 어휘력은 점점 향상됐고, 다른 교과목 성적도 올랐다. 10여년 뒤 그는 미국 최고 명문인 예일대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됐다.

박세미 기자

“수시 비중 77%인 서울대... 독서 영향력 점점 커져”

서울대 권오현 입학본부장

권오현 서울대 입학본부장(사진)은 “해마다 서울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조사하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대표적인 이유로 독서 습관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자기소개서의 한 항목에 독서 이력을 기록하게 하는데 입학생들이 점점 더 많은 책을 읽고 입학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책이 8700여권이었는데,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9400여권이



로 늘었다. 권 본부장은 “이를 보면 서울대 입학생들이 고교 시절 자신의 관심에 따라 점점 다양한 책을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서는 학교 공부의 기초이며 대학인의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독서의 양보다는 독서를 통한 내적 성숙을 중요시한다”면서 “자기소개서에 쓰기 위한 보여주기기 독서가 아니라, 자기주도적 탐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진 독서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근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2017학

년도 77.5%)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권 본부장은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시모집 인원이 늘면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학교 공부와 연결해 지적 경험의 깊이를 더해가는 자기주도적 학교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독서 이력을 기록할 때는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보다는 읽게 된 계기, 책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좋다고 권 본부장은 조언했다.

안석배 기자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애플에서 초등학생들이 수업도서에 대한 독서 후 활동수업을 거친 후 쓴 것으로, 번갈아가며 매거진에 실습니다. 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쓰게 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았거나 주었던 경험을 적어보세요.

김진용(한발초2)

나 역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언제냐면, 바로 날마다다. 엄마가 날 낳아주셨다. 아빠, 이모, 삼촌, 우리 조카와 이모 등, 그사람들에게 나는 똑같은 도움을 받았다. 그 도움이란 내가 슬플 때는 달래주고 무거운 짐은 재빨리 달려와서 대신 들어주는 일 등이다. 그리고 가끔씩 내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더 재미있게 해준다. 받았던 도움 중에 각각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모가 요리를 가장 최선을 다해 만들어주는 것과 엄마가 일찍 깨워줘서 놀게 해주는 것, 내 조카들이 내게 목마를 태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빠나 작은 이모, 큰 이모가 나를 재미있게 해준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가 일요일 아침마다 나를 4:30에 깨워 목욕탕에 가서 7:40에 집에 돌아온다. 나도 그냥 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빵 등을 사주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100명쯤도가 법게 넘는다. 그중에서 아빠가 키가 가장 커서 날마다 키를 잰다. (가끔씩) 그리고 심부름도 잘해주고 가끔씩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으면 서로 돕는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 줄 때도 있다. 우리 가족 최고!



내 방은 내가 청소 하는 것

5. 공평이란?

언니가 중학교 때 핸드폰을 샀으면 나도 중학교 가서 핸드폰을 갖는 것

6. 유머란?

작은 오빠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내가 (강아지 인형을 가져와) “오빠, 우리 강아지 미미 키우잖아.”라고 대답하는 것.

7. 양심이란?

아이스크림을 먹고 쓰레기통에 분리해서 버리는 것.

8. 행복이란?

내 생일에 친구들이 다 와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

9. 사랑이란?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10. 자신감이란?

틀려도 다시 해보는 것.



동시를 표현해보세요.

최아정(한발초3)

필통과 연필

필통 안에 연필이

맘을 흘리면서

“아이 더워”

필통은 연필이 더울까봐

지퍼를 열어주었다.

바람이 들어가

“아이 시원해”

필통에게 말했다.

“땡큐, 고맙습니다.”

그러자 필통이 연필에게

“뭘, 친구라면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의 '가치사전'을 만들어 보세요.

노민정(한발초3)

1. 친절이란?

아빠의 다리를 밟아 드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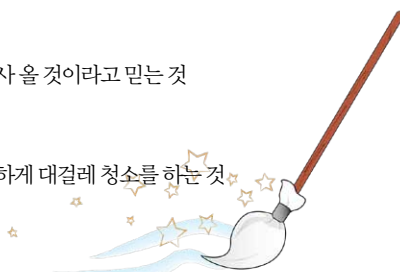
2. 믿음이란?

언니가 음료수를 사 줄 것이라고 믿는 것

3. 보람이란?

가족을 위해 깨끗하게 대걸레 청소를 하는 것

4. 책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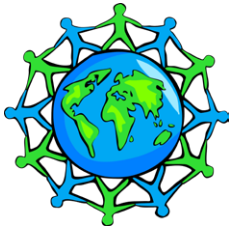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권서윤(대덕초3)

안녕 에밀리야, 난 서윤이야. 친구들이 네가 손가락 눈을 가졌다고 피식 웃었지만 너는 울지도 않았어. 씩씩하게 울지도 않고 넌 씩씩한 아이야. 그리고 널 놀리는 건 이상해. 더군다나 손가락 눈을 가졌다는 건 좋은 거야. 남들이 보지 못한 뱀도 찾고 오븐 뒤에 있었던 잃어버린 물건도 다 찾아주고 말이지. 손가락 눈을 가졌다고 놀림 받아도 슬퍼하지 마. 나도 얼굴이 빨개서 놀림 받은 적이 있어. 하지만 그때 친구가 그런 나의 모습을 더 좋아하고 부러워했었어!



힘내 에밀리!

에밀리 나도 너처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싶어. 나는 사람들과 달리 인공 팔 근육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나는 없어서 속상해. 또한 다문화 친구도 소중히 여겨야 돼. 이유는 우리랑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 친구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미래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지유(성모초4)

나는 미래의 지구가 지금보다 더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

금이라도 환경 보호에 눈을 뜬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매주 쓰레기 봉사를 하며 길거리를 치우고 은행나무나 미루나무처럼 공해에 강한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 대기 오염을 막을 것이다. 또 미래에는 과학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는 공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 그곳에서 여러 분해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쓰레기를 물 분자나 공기로 바꿔낸다. 그럼 그 쓰레기는 남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또한 환경 캠페인을 여는 외제인들이 지구에 와서 우리 지구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반 친구들을 소개해 보세요.

주지원(한밭초4)

제 친구 채연이는 우리 반 회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줄을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민호, 윤호, 새결, 찬형이는 가끔씩 싸웁니다. 또 소윤이는 발표도 잘하고 가끔 대답이 틀려서 다른 친구들이 쳐다보고 욕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규리는 친구들에게 배려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예니는 친구들과 잘 놀고 잘 싸우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수관은 친구들을 웃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이는 자기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이렇게 저희 반은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이겨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즐거운 반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서로 도움을 주는 화목한 반이면서도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독재자 없는 반입니다.



국어의 재미가 은하수처럼 펼쳐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미래내 국어 (1~6학년)

학교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 공부하는 교재

우리 아이들의 기초체력을 키워주기 위해 미리 만나는 교재

교과서 어휘, 받아쓰기,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쓰기, 원고지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재

"저학년때는 다른 과목보다도 국어를 잘해야 하고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문제 해결능력이 길러져서 다른 과목의 문제들도 잘 풀이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알게된 교재가 초등학생을 위한 미래내 국어라는 책이랍니다. 학년별로 따로 교재가 나와있어 우리말에 맞는 1:1 수업이 가능하답니다. 학부모 서평 중



황종일 지음·리딩엠·값 9,000원
도서구입·인터넷·YES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과 일반서점에서 구입 가능

www.readingm.com



내가 도시계획가가 된다면?

이조영(문정초4)



내가 도시계획가가 된다면 첨단 기술을 발달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첨단 기술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태극 모양인 '한국 환경 공원'을 만들어 그 안에 산책로를 만들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의자가 설치된 '몬스터 힐'을 만들어 그 의자에 앉아서 목적지를 검색하면 목적 장소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원에는 로봇 벌레들을 날아다니게 만들어 쓰레기를 그

로봇 벌레들이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



'까만 달갈'의 등장인물을 골라 편지글을 적어보세요.

박현성(문정초4)

재현&달이에게

안녕. 나는 현성이라고 해. <까만 달갈>을 보니까 너희를 생각하니 불쌍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 힘을 내. 친구들이 엄마에게 교육을 잘받았으며 놀려도 무시해. 더 심한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 달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한국인이야. 나는 네가 혼혈에다가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 생각해봐.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이야. 처음엔 그런 오바마 대통령을 무시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었어. 달이 네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내 애들아.



'아이들의 못말리는 서커스'를 읽고 독서감상문을 적어보세요.

오승석(대덕초5)

나는 <아이들의 못말리는 서커스>를 읽고 내 경험을 떠올렸다. 나는 과학 실험으로 돼지 심장을 해부한 적이 있는데 엄마와 같이 협력해서 해부했다. 나는 재미있었고 뿌듯했다. 나는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이 책에서처럼 광대는 아니지만 어떤 퍼레이드 같은 것을 열 것이다. 내 생각에 협력은 좋은 것 같다. 기쁠 때 협력하면 기쁨이 2배가 된다. 어떤 공립광고에서는 협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테트리스에서 한 조각만 두면 모든 조각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어떤 많은 스트레스라도 협력 한 번이면 다 없어진다는 뜻이다.

'멀리 가는 향기'라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온다. 그 이야기는 작고 약한 꽃이라도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면 황홀한 향기를 내뿜는다는 이야기다. 나는 책 속 6인방처럼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장화' 입장에서 '홍련'이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이보람(글꽃초5)

홍련이에게

안녕, 홍련아. 나야 장화. 요즘 천국에는 연꽃이 활짝 퍼서 저승 학교에서 견학을 오기도 한다. 난 다행이도 옥황상제와 결혼을 해서 2시간 전에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그 아이가 너를 꼭 빼앗은 거 있지. 우리 아기 이름은 '화련'이야. 아들이래.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지금 조선에선 물가가 올랐니, 아님 내렸니? 이곳에 있으면 좋긴 하지만 널 볼 수 없어 참 슬프구나. 어? 우리 옥황상제님께서 오셨네. 네게 할 말이 있으시대. 대신 전할게.



"안녕하세요. 전 옥황상제 '화련'이에요. 우리 장화씨가 당신의 조카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 때는 당신이 언니를 지키려고 했지만 못 지켜서 슬프다는 걸 알지만 당신의 애정으로 제가 특별히 저승에서 천국으로 오게 해 드리지요. 그럼 이만."

와! 너무 좋다! 조금 있으면 우리 화련이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나중에 보자.

장화언니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도원(한밭초6)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약속은 꼭 지키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자 앉아있는 친구에게 "같이 놀자"라고 말해주는 것,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을까? 아마 굉장히 많

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오는 불이익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낸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 다른 사람에겐 관심을 주지 않아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 주겠지'하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의를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없을까? 이 이익이 꼭 이 사람에게 가야 한다 싶으면 거리낌 없이 희생해주고 이익을 받은 사람은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해 하며 은혜를 갚는 그런 관계가 생성되면 모두가 잘살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정준(한밭초6)

2145년 미래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그때는 지금처럼 나무와 바다가 있는 자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3D 프린터로 만든 초대형 자연이 존재할 것이다. 그 속에는 초대형 얼음 사람이 있다.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을 얼리는 것이다. 난 이때 순간 이동이 가능한 포탈로 지구랑 연결되어 있는 화성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또 난 131층에서 살고 그때는 버룩과 같은 것이 없어 '버룩의 간을 빼먹지'라는 말도 없어질 것이다. 현재 19 버전인 게임 Mine Craft는 그때 버전 111.67.85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야기 수학'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적어보세요.

전지원(삼육초6)

나는 오늘 <이야기 수학>이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일상생활의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탈레스가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했다는 것이다. 그게 제일 신기하였다. 이 문제는 닐레비를 이용했다. 또한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아킬레우스'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는 가장 빠르게 달리고 유명한 거북이보다 더 느렸다는 게 참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전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왜 역전이 불가능한지 궁금하였다. 이 책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이 많다. 이 책의 장점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 책을



읽으면 수학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수학을 재미있게 만든 책이다. 이 책은 읽고 푸는 문제 중에서 '서양은 왜 숫자 13을 불길하게 여기며 아라비아 숫자 말고 다른 숫자를 사용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다. 나는 그중 일부만 대답하였다. 그런데 거의 다 책 속에 나와 설명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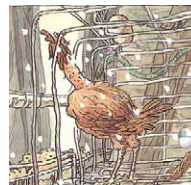
옛날에 수학책을 틈틈이 봐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은 수학과 가깝게 느껴지도록 해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적어보세요.

주새길(삼천초6)

나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영화로 보고 다시 읽어 보았다. 이 책은 정말 감동을 주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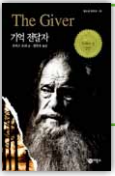
이름이 '잎싹'인 암탉은 양계장에서 알을 못 낳는다고 버려진다. 잎싹은 나그네라는 청둥오리에게 은혜를 입고 그것을 갚기 위해 같이 떠난다. 어느날 잎싹은 알을 발견하고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알을 품는다. 그 알은 나그네의 것이고 족제비에게 짝을 잃은 나그네는 잎싹이 대신 알을 품어주는 것이 고마워 잎싹에게 먹이를 챙겨주고 지켜준다. 알의 부화 시점에 다시 배고파진 족제비가 나타나자 나그네는 잎싹과 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족제비에게 먹힌다. 알에서 나온 청둥오리는 초록머리이다. 초록머리를 데리고 잎싹은 저수지로 간다. 저수지에서 성장한 초록머리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오리 무리와 어울리려 하지만 주인의 모진 대우에 잎싹 곁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저수지에 청둥오리 무리가 오고 초록머리는 파수꾼이 된다. 그러던 중 족제비 새끼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잎싹은 희생된다. 그러나 자신만의 새끼를 키우려던 꿈을 이루고 잎싹은 세상을 마감한다.

나는 이런 잎싹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잎싹은 꿈을 이루고 죽었기 때문이다. 나도 죽더라도 소원은 꼭 이루고 죽고 싶다. 야생이란 어려운 환경에 나와서 가끔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잎싹이 매우 존경스럽다.

파수꾼이 된 초록머리는 효자인 것 같다. 엄마가 자신과 같이 많은 동물이란 걸 알고도 또 놀림을 받으면서도 엄마를 보호해주고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도 꼭 효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락하게 남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소설 각색] 나는 기억 전달자이다.

민준홍(한발초6)

나는 기억 보유자가 되었다. 나는 나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본다. 나는 점점 외로워졌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그래서 원로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나는 거꾸로 대답해줬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에는 혼란스런 대답으로 대혼란이 찾아왔다. 나는 나의 직업을 들켜서 임무해제 될까 봐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움직여 탈출에 성공했다.

나는 도망을 칠수록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 너무 추워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일어나보니 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비행기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든 기억이 다 돌아왔다고 말해줬다.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했던 원로들을 감옥에 가두고 옛날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잤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보유자라고 불렀다. 그때 원로회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어제 일은 모두 꿈이었다.



100년 뒤 지구 환경 보고서를 써보세요.

정상준(한발초6)

지구는 이미 오래전인 100년 전부터 지구온난화가 시작되었다.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더욱 더워져 사람들은 부채를 팔로 흔들어 바람을 쐬는 방식보다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자동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장들은 일을 더욱 분주하게 했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설치가 많이 드는 재생 에너지보다 화석 연료를 사용해 온실가스를 더욱 많이 배출했다.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만들어 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고갈되자 사람들은 더욱 석탄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계속 석유만 쓰자 석유는 예상 시간인 170년이 아니라 천연가스가 고갈 된지 20년 만에 고갈 되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에 눈을 돌렸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기 시작했지만, 때는 이미 지난 뒤였다.

결국 지구는 황폐해지고 지구상 모든 생물이 멸종되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계속 높아져 지구 내부의 온도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지구 내부의 온도도 계속해서 올라가자 결국 내핵이 폭발하게 되었고 지구는 끝내 멸망했다.



리딩엠 출판 도서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을 담은 여고생들의 독서활동

서울대 학생들이 전해주는 자신의 독서이력, 독서노하우

학교 수업에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해줄 학습서 1~6학년, 전 12권



김정연·한희정 지음
| 10,000원 | 리딩엠



김선민 외4명 지음
| 12,000원 | 리딩엠



황종일 지음
| 9,000원 | 리딩엠

www.readingm.com

리딩엠

전국 글짓기 대회 및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리딩옴 학생들의 수상작을 실어 드립니다.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26회 중원문화회 청소년백일장 입상

김세진(문정중3)

가족 날씨 영하 10도

몇 주 전, 새 학기가 되어서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다. 약 한달 전부터 독서실까지 다니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속상했다. 특히 수학점수는 더 치참했다. 3남매 중 어린 남동생을 제외하고 언니라도 잘 봤으면 했지만 언니도 비슷했다.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치 '나로호' 발사 전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처럼 긴장되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온 날, 우리집에 '나로호' 발사의 기쁨이 아닌 폭탄이 터지고 말았다. 원래 성격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신 엄마가 펄쩍 뛴다. 형편 없는 점수에 황당해 하시며 한숨만 폭폭 내쉬었다. 가뜩이나 속상했는데 엄마까지 열을 내시니 대들고 싶었지만 엄마가 더 노발대발 하실까봐 참았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엄마가 계신 안방으로 돌진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엄마에게 화를 냈다. 나는 혹시 나에게 불뿔이 튀지 않을까 불안한 나머지 없는 숙제를 만들어 잠자코 책상에 앉아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에게 화를 내시던 엄마에게 아빠가 한소리 하시면서 부모님의 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어느새 언니는 겁을 먹고 내 방으로 피신을 와있었다. 그러는 동안 안방 문이 세계 광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빠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시며 현관문을 향해 쿵쿵 발소리를 내며 걸어가셨다. 울먹이던 언니는 필사적으로 아빠를 붙잡았다. 아빠는 언니를 뿌리치시진 못하셨지만 아빠의 표정은 구겨져있었다. 마치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아빠는 현관문을 신경질적으로 닫으시며 나가버리셨다.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행히 돌아오셨다. 항상 보던 얼굴이었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제야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부모님은 여전히 서로 말씀을 안 하셨다. 그야말로 분위기는 정말 냉담했다. 꺼낸 말 한마디가 얼어붙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차가웠다. 그 시간동안은 눈치 없는 막내 동생도 장난기 없이 숙제를 했다. 나도 마찬가지로 언니도 묵묵히 학교와 학원을 오갔다. 나는 차라리 학원에 있는 시간이 얼음장 같은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했다. 며칠 뒤 아빠가 엄마께 사과의 의미로 상품권을 선물하시면서 이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나는 이 일로 느낀 것이 참 많다.

지금까지 가족의 싸움에 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랑 싸웠을 때 죄책감이 들기보다 화만 났었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 끼여다니 몸과 마음,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차라리 그 상황에 없는 게 나를 만큼 마음이 불편했었다. 이제 보니 부모님께서 우리 삼남매끼리 싸울 때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셨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예전에 언니와 나는 부모님께서 한숨 쉬시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서 한숨 쉬실 때 마다 집안 온도가 -1도씩 떨어지는 것 같다고 묘사한 적이 있다. 그때는 그저 웃어 넘겼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다. 요 며칠간 -10도 같이 차가운 가족 날씨를 견디느라 떨리고 무섭기도 했었다. 한겨울의 차가운 호수에 입수해 버린 그런 느낌이 며칠간 지속되니 정말 죽을 맛이였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시험

성적도 올리고 가족 날씨가 항상 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온도도 따뜻하게 올릴 것이다.

친구사랑 교내 공모전 은상

최민서(봉명초1)

내 마음 속 칠판 (책 '절대 용서할 수 없어'를 읽고)

캐런 앤 모로우의 <절대 용서할 수 없어>란 책은 친구와 서로 다투어 마음에 상처를 받아 친구를 용서할 수 없을 때나 친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읽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 화가 나서 미웠던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친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마음의 상처가 사라져요.

“무릎이 다치면 상처가 생기듯이 마음도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좋은 방법이야.”

책 속 이 말처럼 친구가 실수로 내 것을 망가뜨리거나 부숴줄 때 내가 속상하면 그게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때 친구가 나에게 표현하는 미안한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용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에요. 나도 친구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랑 얼음땀을 했는데 얼음 상태인 나를 친구가 계속 잡았다고 했을 때와 내가 먼저 읽으려던 책을 친구가 빼앗아 갔을 때 속상했어요.

이 책을 읽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는 친구에게 “다음부터 하지 말아줘.”라고 말하고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거나 아직 내 마음에 풀리지 않았을 때는 용서할 준비가 끝난 후 다음에 만날 때에 “저번에는 내가 속상했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친구의 사과를 진짜로 받아드릴 수 있을 때를 말해요. 만약 친구가 내가 화난 것을 모를 때는 친구에게 “친구야, 너 때문에 조금 속상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친구가 끝까지 모르면 나는 더 속상해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

“네가 친구를 용서하는 건 마음의 칠판에서 친구의 이름을 지워 주는 거랑 같아.”

이 부분을 읽고 나도 내 마음 속에 지워주고 싶은 친구를 떠올렸어요. 유치원 때 친구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하면 그 친구는 내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거나 딴 짓을 하거나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 친구에게 빠르게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 얼음땀에서 날 술래로 만들었던 친구와 의 속상했던 상황도 생각해보면 조금 재밌었던 상황 같아요. 나에게 나쁜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한테 친구가 없었을 때 그 친구가 먼저 다가가 줘서 무척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 마음 속 칠판에 그 친구 이름을 지웠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는 내가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친구를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그 친구도 내 말을 똑같이 잘 들어주고 존중해 줄 것 같아요. 또 이 책을 학원에서 책 때문에 싸웠던 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 친구도 마음 속 칠판에서 내 이름을 지워줄 것 같아요.



책임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오피에서 중고등 학생들이 수업도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 후 특정 주제 또는 논제에 대해 쓴 글들입니다.



남녀차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박소현(탄방중1)

<나, 열네 살 여자>라는 책을 읽고 남녀차별이 딱 눈에 들어왔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차이는 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남자는 커가면서 목소리가 낮아지고 굵어지는데 여자들은 커가면서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

나는 위와 같은 차이와 상관없는 남녀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생긴 잘못된 관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여자와 남자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우리는 성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남녀차별의 예를 들어보자면 학교 자습시간에 남자들은 밖에서 짐을 옮기고 여자들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처럼 남자들은 항상 활발하고 힘써야 하고, 여자들은 항상 얹전해야 한다는 관점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집안은 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딸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 집도 있다.

만약, 남녀평등이 우리 사회에 실현되면 여자들이 회사에 취직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회사는 예뻐야지만 뽑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얼굴보다는 능력을 보는 것이 그 회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남녀차별은 이제 그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열네 살의 인턴십'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적어보세요.

김가현(둔원중1)

<열네 살의 인턴십>의 주인공은 '루이'이다. 루이는 잘하는 게 없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한다.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루이는 실습을 나가게 된다. 하지만 루이는 자신의 적성을 알지 못해 망설임이다 할머니 조언으로 미용실로 실습을 나가게 된다. 미용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된 루이는 헤어디자이너를 꿈꾸게 된다. 결국 아버지와 친구들의 반대에도 루이는 자신의 브랜드까지 갖게 되는 헤어디자이너로 성공하게 된다.

나는 책 속에서 루이의 친구 루도빅이 미용실을 찾아와 루이를 놀리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미용은 공부와 먼 직업이라며 루이를 놀리는



루도빅. 루이는 화는 나지만 친구 루도빅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없었던 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작은 실습을 통해 꿈을 키우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꿈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원하는 꿈을 결국에 이루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인권을 침해하는 관습은 문화로 인정될 수 없는가?

이준영(유성중2)

강제적인 문화는 절대 문화로 인정될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문화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으로 문화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소말리아의 풍습인 할레와 같은 문화는 절대 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할레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이며 이를 하지 않는 여성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게 하여 모두가 할레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풍습은 여성을 무시하고 그 사회적 지위를 낮추게 하는 차별적 문화이기도 하다.

나는 아프리카에선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은 온갖 집안일에 고된 노동까지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TV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 여성은 생명을 낳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고 한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뇌를 검사해보아도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따라서 어느 곳이든 양성 모두 평등한 것은 당연해야 하며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관습만이 문화로 인정받아야 한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가?

임상균(탄방중3)

나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라는 주장에 찬성한다.

그 이유로 첫째, 여러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행동이 아닌 언어로 하는 부분이 크고 의미가 달라지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이야기처럼 의미를 다르게 바꾸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원래의 명칭도 잃어버리고 섞일 수 있다.

다음 이유로는 언어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언어가 개인의 것이라면 자신이 마음대로 언어와 의미, 이름 등을 마음대로 정하고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서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소통할 수 없게 된다. 학교에서 강의나 공식적인 강연을 할 때 피해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의미는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언어의 의미를 바꾸면 원래 있었던 사전도 필요 없게 되거나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된 인물들의 행동을 평가해보세요.

한동균(탄방중3)

1. P가 K사장에게 가자 일자리를 부탁하는 행동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가 부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다. 내가 P였어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2. P가 H, M과 술집에 법률책을 잡혀놓고 술을 먹는 행동
세 사람 모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법률책을 담보로 돈을 받아 쓸까 하는 안타까움과 그 상황에 공감 이 갔다.
3. 계집이 자신의 몸을 팔 테니 20전을 달라고 하는 행동
'돈을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P는 계집의 제안을 듣자 돈을 주고 뛰쳐나왔는데 잘 생각한 것 같다. 자신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도왔기 때문이다.
4. P가 어린 아들을 인쇄공 연습생으로 보낸 행동
나는 아들을 인쇄공 연습생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실을 이해한다. 시대상 공부를 해도 취직을 못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쇄공으로 보내 기술을 익혀 최소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양반전'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적어보세요.

이연우(삼육중3)

<양반전>은 조선시대 유명한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어느 고을에 관리가 와서 검사하는 도중 천 석의 쌀을

빌린 양반을 발견하자 관리는 군수에게 이 양반을 옥에 잡아오라 했다. 군수는 양반을 잡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눈물만 흘쩍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안 부자는 신분세탁을 하고 싶어서 천 석을 갚아 주는 대신 양반의 신분을 달라고 하고 양반은 이를 흔쾌히 허락한다. 군수는 상황을 듣고 헐레벌떡 와서 증서를 남기자고 제안을 했지만 부자는 탐탁지 못해 도망쳐 버리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책을 읽은 후 나는 마지막에 부자가 도망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이 장면에서 군수의 말이 너무 지겹고 귀찮았는지 도망가는 부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웃기기도 했다. 하지만 군수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지은이가 어떤 방식으로 양반을 비판하는지도 보였다. '만약에 부자가 군수의 증서를 받아들이고 양반과 신분이 바뀐 채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됐다면 양반은 비참하게 살고 부자는 평평거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다.



'양반전'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적어보세요.

김인겸(삼육중3)

<양반전>은 양반이 수년 동안 관아에서 쌀을 빌려다가 쓴 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시작된다. 새로운 감사가 부임이 된 후에 양반이 수년 동안 쌀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알고 양반을 잡아들이려 했다. 이를 알고 양반은 걱정하고 있는데 옆 마을에 있던 부자가 이를 알고 양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천 석을 내주는 대신 양반자리를 팔라고 흥정을 했다. 그렇게 부자가 양반자리를 산 것을 알게 된 감사



가 소송을 없애기 위해서 양반 증서를 써준다. 증서의 내용을 들은 부자는 결국 양반의 실체를 알게 되어 양반자리를 버리고 대신 양반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다.

양반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군수가 양반 증서의 내용을 읽어준 후 부자가 자리를 뛰쳐나간 장면이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양반의 형식

적인 모습에 다시 써 달라고 하였지만 그 후에는 양반의 실질적인 모습에 놀라 자리를 버린 것이다.

양반전에서 군수가 첫 번째 증서에서 말할 때 양반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모습 때문에 의아했다. 두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의 실질적인 모습에 놀랐다. 그 시대에서 양반은 존경받는 위치가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날강도와 같은 존재였을 것 같다.



과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위대한 학문인가?

에서 그것과 연관된 다른 사실들이 지워지거나 수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은 완벽하지 않다. 또한 학문의 발전은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봉희(글쑥중3)

과학이 발달되며 생활이 편리해졌고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 등이 존재하는 과학은 재밌다. 그러나 재밌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하는 않다.

과학이 여태껏 진화해오며 정답과 오답을 수없이 많이 배출해왔다. 예를 들어, 지구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는 말을 다시 수정해 태양 주위를 돈다고 정정하고 수십 개의 아니 수억 개의 틀린 가설을 수정하면서 진정한 답을 찾게 되었다.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순 없다. 생활의 모든 기구와 일상 하나하나에 과학이 담겨있고 그것은 즉, 누군가가 과학적인 사실을 입증하여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과학은 위대한 학문이라고 볼 수 없다. 과학이 완성되려면 그 사실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 이전의 또 다른 사람이 정확한 사실을 내놓아야 후대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다. 사실 지금 존재하는 과학적 사실도 전부 맞지는 않다고 본다. 만약 지금 사실 중 하나가 틀렸다면 그걸 수정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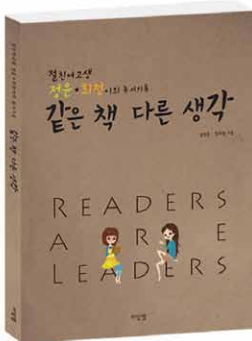


절친여고생
정운★희정의 독서기록

리딩엠

같은 책 다른 생각

언론이 극찬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책!!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생각'을 담은
두 절친의 독서기록

[같은 책 다른 생각]은 3년 동안 인문, 과학, 사회,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눴은 절친 여고생 저자들의 톡톡 튀는 시각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중 한 명은 이과를, 한 명은 사회과학 계열을 지망하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두 저자들의 독서 감상문 속에는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관점의 생각이 담겨 있다. 비판적인 시선, 인문학적 상상력, 저자의 생활이 녹아든 생각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4년 05월
2쇄 발행



리딩앰 목적수업 잘 활용하면 일석이조 효과 볼 수 있어

목적수업이 무엇인가요?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한 목적수업 활용하기 TIP

신청



지도교사 배정



수업진행



산출물

Q. 목적수업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독서활동 정리, 교내대회나 교외대회, 수행활동 평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학생이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 지도가 필요할 경우 준비부터 결과물까지 학생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특정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수업으로 정규수업과는 별개이며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정규수업과 별도입니다.

Q. 목적수업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과학글쓰기, 과학탐구대회, 통일독후감 대회, 나라사랑 토론 대회, 교내토론대회,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자기소개 PPT 발표, 독서활동 정리, 탐구보고서 쓰기, 소논문 쓰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Q.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미리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박해서 신청할 경우는 지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출물이 나오기까지 학생이 프로세스를 밟으며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Q.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포된 공지문을 출력해 리딩앰에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지문을 정확하게 보고 목적수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 필요시간을 산출해 어머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Q. 교내토론대회 목적수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교내 토론 대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입론서 제출입니다. 그래서 토론 대회 목적 수업을 할 경우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입론서 쓰는 수업을 2회 진행합니다. 주제에 따라 3회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은 노트북 등을 이용해 자료를 찾고, 입론서를 정리하게 됩니다. 입론서가 통과되면, 다음 단계가 토론 준비입니다. 토론 방식은 다양하므로, 토론 대회측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반드시 숙지하고 그에 맞게 토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론 준비는 대략 3회 정도 목적수업이 진행됩니다.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바뀌며 해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토론에 임할 수 있습니다.



교내외 대회 입상자 - 수상을 축하합니다!



제26회 중원문학회 청소년백일장

김세진(문정중 3) 입상



친구 사랑 교내 공모전

최민서(봉명초 1) 은상

중등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중등 자유학기제 시행, 왜 책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인가?"



역사학자가 말하는 인물 평가 기준은 무얼까.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 부합 여부, 더 나은 가치의 창출을 위한 노력 여부, 그 인물이 산 삶의 가치의 현재성 여부를 꼽았다. 그렇다면 이런 면모를 갖추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바로 책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2016년부터 전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확대시행

현 정부는 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2015년에 일부 지정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부터 전체 중학교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최근 OECD 등을 중심으로 협동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21세기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혁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키로 했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학업성취도 국제학력평가) 2015에서도 협력적 상황에서 개인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래 희망이 없다는 중학생이 31.6%나 된다는 놀라운 수치 앞에서 현행 교육의 빠져진 반성이 요구된다. 특히 자기표현력, 학교 구성원간 친밀도 등을 높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 제도는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유학기제 해법은 책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

자유학기제 도입은 평가 방식의 혁신을 도모한다. 그동안의 70%의 5지 선다형 객관식과 30%의 단답형 서술형 주관식 문제에서 벗어나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실험 실습 등 학생 참여 활동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 토론

수업 및 실험·실습 등 체험 중심 수업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은 책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 능력이야말로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와 자기 표현력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 토론 수업 및 실험·실습 등 체험 중심 수업 활성화를 꾀하는 자유학기제 시대에 더욱 학생을 빛나게 할 것이다.

2016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 선정 리딩옴의 3박자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리딩옴은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 활동 부문에서 소비자가 뽑은 2016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에 선정됐다. 리딩옴의 최대 장점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독서 활동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 활동·진학과 연계된 커리큘럼으로 독서 수업이 진행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풍부한 장서는 학생이 독서와 연계된 교내 활동 및 각종 글쓰기 대회에 참가할 경우 목적 수업으로 이용되고 있다. 리딩옴의 3박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책 읽기 : 자기 주도 학습의 출발은 독서



우선 책 읽기다. 최근 우리 사회는 동서고금 인류의 문화유산이자 지혜의 산실인 책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유행어인 자기 주도

학습의 출발이 독서인데 말이다. 어렸을 때부터 긴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책을 읽어나가는 훈련은 집중력과 끈기를 길러주어 공부 체력을 길러준다. 공부도 엉덩이로 하고 만화도 엉덩이로 그린다지 않나.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인성 함양에도 기여하는 독서는 교과서가 전부가 아닌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그 진가를 여김없이 발휘한다.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이 강화되고 어휘력이 탄탄해진 수험생은 속독 속해가 필수인 국어 영어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며 대학 수능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셈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고1 과정인 고등 국어가 11종, 고2 과정인 고등 문학이 14종. 이렇듯 모든 교과가 단종이 아닌 다종시대에 읽기 능력은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이다. 또 다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 속에 전문학적인 수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독서 능력이 바로 기능적 측면에서도 인물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각 교육센터에 구비된 1만 권 내외의 도서는 교과 연계 정규 수업 교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독서이력진단에 따른 교사 추천 도서 또는 학생들의 선택 도서로 읽히고 있다.

2. 토론 : 문제해결력 체득은 지속적인 토론과 토의

다음은 토론이다. 토론은 단지 대립적 말하기뿐만 아니라 협력적 말하기인 토의, 대담, 상담, 협상 등의 공적인 말하기와 대화로 대표되는 사적인 말하기를 함의한다. 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단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시콜콜한 온·오프라인 정보를 검색하고 댓글 다는 것이 소통의 전부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국시대 소진과 장의가 펼친 합종연횡은 전쟁을 막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 않았는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의 원리인 협력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를 체득하는 토론은 작게는 진학과 입사 시험 합격에 위한 준비이자 국가 간의 원만한 무역 협상과 평화 회담 능력의 토대가 된다. 책을 읽고 논제를 발제하여 토론 거리를 도출하는 능력은 학창시절에는 학습으로, 사회생활에서는 업무 능력으로 각각 표출된다. PISA 2015에서도 협력적 상황에서 개인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평가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지속적인 토론·토의를 통해 체득하지 않고는 형성되기 어려운 능력이다. 최근 대학입학 전형에서 수시 비중이 날로 강화되고 면접시험 결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마당에 공적인 말하기와 발표 능력 함양은 명문대 진학의 발판이다.

3. 글쓰기 능력 : 다독과 다상 그리고 충분한 훈련

화룡점정은 글쓰기 능력이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백여 권의 저술을 남긴 다산 정약용은 그의 형 자산 정약전을 평가하기를 모든 분야에서 자기보다 탁월했지만 다만 기록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역사적 평가가 이를 잘 방증해주지 않는가. 다산은 중농주의 실학의 거두로 꼽히지만 자산은 해양생태계 연구에 공을 세웠다 정도로 평가받고 있으니 말이다.

논리적인 글쓰기와 감성적인 글쓰기를 잘하려면 다양한 글쓰기 첨삭지도를 능수능란하게 도와줄 교사를 만나 충분히 훈련해야 한다. 물론 좋은 글쓰기의 왕도는 많이 써 보는 것이지만 전제는



다독과 다상이다. 또한 훌륭한 글은 읽는 것만으로도 글쓰기 교본으로써의 기능이 충분하겠지만 직접 베껴 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명문고, 명문대 진학의 첫걸음은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입사 지원서는 실물 면접 전 서류전형의 첫 단추다. 여기서부터 밀리면 영원히 밀린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재로 거듭나려면 많이 읽고(다독) 많이 생각하고(다상) 많이 써야 한다(자작). (주)리딩엠은 풍부한 독서, 협력적 말하기와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로 굳건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주정봉_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대전둔산 교육센터 원장

리딩엠이 스마트해졌습니다!

리딩엠의 교육방향, 교육목표 그리고 각 지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보고 싶다면

→ 리딩엠 홈페이지(www.readingm.com)

리딩엠에서 이뤄지는 글쓰기 등 교육활동의 다양한 결과물을 눈으로 읽고 확인하고 싶다면

→ 리딩엠매거진(magazine.readingm.com)

내 아이의 다음주 수업도서 목록, 지금까지 읽은 독서이력, 글쓰기 결과물을 보고 싶다면

→ 램스솔루션(online.readingm.com)



다음 글은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칼럼 수업 후, 자신이 현재 원하던 직업을 가졌다고 상상하고 (김현수 학생: 스포츠 캐스터) 글쓰기를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TIREOBANK KBO리그

2016 프로야구 예상 순위

김현수(신서중2)



1. NC다이노스(연고지: 창원 감독: 김경문)

주력선수: 박석민

이유: 4년 96억으로 거대 계약을 완료한 NC와 박석민. NC의 유일한 최약 포지션을 박석민으로 메꿀 예정이기 때문에 빈틈없는 포지션과 타순. 이재학-이태양-스튜어트-해커의 막강 선발진은 모두 10승이 가능한 투수들이다. 또한 작년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마무리 투수 임창민도 올해도 든든한 뒷문 역할을 해줄 예정이다. 거기다 불펜(중계)투수 이민호, 노성호, 최금강, 임정호 등이 힘을 보태 예정인 NC는 막강 우승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2. 삼성라이온즈(연고지: 대구 감독: 류종일)

주력선수: 구자욱

이유: 작년 한국시리즈, 안지민, 임창용, 윤성환이 도박혐의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투수진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치르게 된다. 그결과 5년 연속 우승에 실패하고 두산에게 우승트로피를 건네주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안지민과 윤성환을 삼성은 더 이상 좌익취급을 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후, 현재는 같이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임창용은 삼성에서 방출된 후, 많은 나이 탓인지 다른 팀에게 접촉도 없다. 이로써 투수들의 공백은 최소한 막은 삼성. 2011년부터 활약했던 배영섭도 군에서 돌아왔고, 작년 신인왕 구자욱은 빠른 발과 뛰어난 컨택트 능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삼성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차우찬-윤성환-장원삼-웹스터-벨레스터로 이어지는 빈틈없이 꽉찬 선발진도 빼놓을 수 없다. 14년 차 베테랑 박한이도 올해 2000안타의 대기록을 수립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3. 두산베어스(연고지: 서울 감독: 김태형)

주력선수: 유희관

이유: 작년 우승에 빛나는 두산베어스, 하지만 올해는 김현수의 MLB진출로 인해 타선의 전력누출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인 박건우, 정진호가 공백을 잘 메꿔주면 3위는 거뜬할 것이다. 작년 쓸쓸한 활약을 보여줬던 마무리 이현승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정수빈, 민병현의 외야진과, 오재원, 양의지, 김재호 등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팀 기여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최약 포지션인 3루수는 내.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닉 에반스가 맞으면, 두산의 순위는 안정적으로 3위권에 들 어갈 것이다.

4. 한화이글스(연고지: 대전 감독: 김성근)

주력선수: 정우람, 로사리오

이유: 한화 이글스는 올해 최약한 불펜투수 강화를 위해 거액으로 강철투수 정우람을 영입했다. 게다가 베테랑투수 심수창도 함께 영입해, 한화에게 적지 않은 힘을 보태 예정이다. 게다가, 한화와 재계약을 한 거포타자 김태균도 20홈런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최진행, 김경언, 조인성, 강경하, 정근우, 이용규 등이 힘을 보태면, 한화 또한 타선에 빈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유일한 최약 포지션 3루. 이 자리는 송광민, 김희성, 권용관 등이 말을 예정이다. 새로운 외국인 타자 로사리오는 포수, 1루수를 맡을 수 있는 장거리 타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1루수는 이미 김태균이 자리를 꿰차고 있고, 포수 또한 허도환, 조인성, 정범모, 차일목, 박노준 등 많은 주전급 선수와 백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아니냐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하지만, 이는 로마리오의 수비가 아닌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화는 올해 우승을 갈망한다고 보여진다. 이런 막강 타선에 박정진, 안영명, 윤규진, 권혁, 배영수, 송은범, 정대훈, 이태양 등의 수준급 선발과 불펜을 동시에 맡을 수 있는 이들이 힘을 보태주면 한화는 이번 시즌보다 순위가 상승될 것이다.

5. 롯데 자이언츠(연고지: 부산 감독: 조원우)

주력선수: 손아섭

이유: 롯데의 최약 포지션은 1루수와 좌익수이다. 그러나 작년말, 2차드레프트로 롯데는 중거리 타자 박헌도를 영입했다. 넥센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넥센의 외야경쟁에 밀려 확실한 자리를 꿰차진 못했다. 그 한을 롯데에서 보여준다면, 롯데의 타선은 강해진다. 롯데의 작년 타선은 골든글러브 후보가 6명일 정도로, 파워, 컨택을 동시에 갖추었다.(정작 골든글러브는 1명밖에 못 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성적은 8위였다. 그 원인은 최약한 투수진이었다. 마무리 자리는 매달 바뀌는 모습이었었고, 불펜을 허용하거나 동점을 허용해 선발투수의 승이 날아가게 만드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올해 롯데는 FA시장에 적지 않은 돈

을 부었다. 투수 손승락, 윤길현을 영입한 것, 이 둘이 롯데의 불펜에서 작년과 같은 활약을 해준다면, 롯데는 한결 경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작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홍성민, 이성민, 박세웅은 선발과 불펜에 힘을 보탤 것이다. 넥센에서 5년간 마무리 역할을 맡았던 손승락도, 롯데에서 25세이브만 기록해준다면 롯데의 투수진은 약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6. 넥센 히어로즈(연고지:서울 감독:염경엽)

주력선수: 대니 돈

이유: 박병호, 강정호는 MLB로, 손승락, 유한준, 송신영은 타팀으로, 한현희는 수술대로 떠났다. 모두 작년은 물론 재작년에도 주전급 선수들이었다. 넥센의 선발은 여전히 취약하고, 불펜의 확실한 투수는 조상우 밖에 없다. 배병욱, 김하성, 고종욱으로 막을 수 있지만, 이 셋은 즉시전력감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넥센은 외국인을 파워타자가 아닌, 컨택트형 타자로 선택했다. 또한, 대니 돈의 전문 포지션은 외야수이기 때문에 작년 외야수들의 공백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7. SK와이번스(연고지:인천 감독: 김용희)

주력선수: 최정

이유: 작년 sk의 순위는 5위였다. 이처럼, sk는 2010년도의 sk가 아니다. 09~10년에는 한국시리즈 진출을 밥 먹듯이 하던 sk가 순위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선,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먼저, 왕년 홈런타자 최정이 살아야 한다. 2013년 이후로는 부상 때문에 100 경기를 출장한 적이 없다. 작년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최정이 자신의 몸 상태를 100%로 끌어올리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sk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마무리투수를 찾아야 한다. 2010년도에는 마무리를 박희수와 정우람이 맡아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마무리가 없다. 작년의 순위가 겨우겨우 5위인 것도, 마무리의 공백이 크기 때문이다. 정우람은 한화로 이적했고, 박희수의 몸 상태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확실한 마무리로 돌아온다면, sk는 훨씬 강해질 것이다. 마지막 조건은 포수이다. 작년 포수는 정상호가 자리를 지켰지만, 정상호는 LG로 이적했다. 그러나 포수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좋은 활약을 뽐낸 이재원이 포수자리를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재원은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명타자로도 많이 나올 예정이다. 이럴 때 포수를 볼 백업들이 성장해 줘야 한다. 허웅, 김인식 등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준다면, 포수자리도 문제없을 것이다.

8. KT위즈(연고지: 수원 감독: 조범현)

주력선수: 박경수

이유: KT는 Fa와 2차드레프트로 선수영입을 알차게 한 팀이다. FA로는 유한준을, 2차드레프트에선 LG베테랑 외야수 이진영을 영입했다. 이로써 KT의 외야는 이진영, 이대형, 유한준, 김사연, 김민혁, 하준호 등 개인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내야진들도 박

기혁-박경수의 키스톤 콤비와 마르테, 김상현까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이다. 한 가지 불안한 포지션은 포수이다. 장성우가 SNS 비란 사건으로 인해 이번시즌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었고, 방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투수로 경기에 입했던 김동명이 고교시절처럼 다시 포수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KT의 토종선발도 구멍이 생겼다. 신생팀 특혜로 외국인을 4명까지 보유 가능한 KT는 투수3명, 야수1명으로 팀을 꾸려, 투수진의 구멍을 최소화 시켰으나, 토종선발로 기대를 모았던 박세웅은 롯데로 트레이드되었고 엄상백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작년에 내놓았다. 주단, 안상빈 역시 확실히 눈도장을 찍지는 못했다. 어리고 충분히 성장 가능한 투수들을 잘 키워내느냐가 관건이다.

9. 기아(연고지:광주 감독:김기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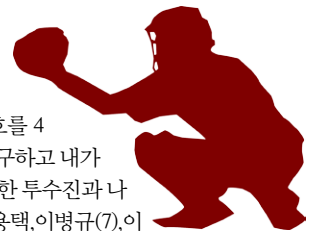
주력선수: 나지완

이유: 기아는 왕년에 명성을 떨치던 선수들을 많이 잃었다. 예전 기아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대형, 최희섭, 김상현, 안치홍, 김선빈, 장성호 등 각각 타팀이나 군대, 은퇴로 기아를 떠났다. 그 와중에 곳곳이 자신의 기량을 뽐낸 타자가 나지완이다. 딱 2014년까지였다. 작년의 나지완은 프로 입단후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수차례 2군으로 강등되었고, 타율, 홈런 등 대부분의 공격지표가 하락했다. 팀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쳐냈던 나지완이 살아난다면 기아의 공격력은 대폭 증가할 것이다. 거기에 이범호, 김주찬, 김원섭, 백용환, 이성우, 신종길 등이 힘을 보태고, 군에서 돌아올 안치홍, 김선빈 에게도 기대를 하고 있는 기아다. 게다가, 군세 선발진 양현종-임준혁-윤석민-스푸루일-노예시가 선발진에서 좋은 역할을 뽐낸다면 더욱 강력한 팀이 될 수 있다.

10. LG(연고지:서울 감독:양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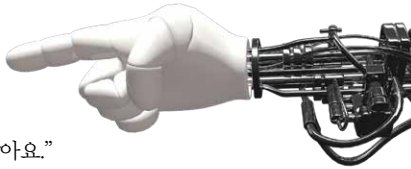
주력선수: 이병규

이유: LG는 이번시즌 포수 정상호를 4년 32억에 계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LG를 최하위로 뽑은 이유는 부족한 투수진과 나이가 많은 야수들 때문이다. 박용택, 이병규(7), 이병규(9), 손주인, 정성훈 등은 LG의 주축 선수들이지만, 나이를 속일 순 없다. 게다가, 김영환, 황목치승, 김용의, 채은성 등의 백업 선수들의 성장도 더딘 상태이다. 강력한 팀으로 변하길 원한다면, 양상문 감독은 양성환, 유강남, 정상호 등 작년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신예들과 이번에 새롭게 계약한 정상호를 유용하게 써야 한다. 투수진은 나쁜 편은 아니다. 류제국, 우규민, 소사,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그리고 봉준근 까지. 선발진은 만들어졌으나, 봉준근이 마무리에서 선발로 보직을 바꿨기 때문에 마무리에도 구멍이 생겼고, 핵심 불펜투수 이동현 역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하다. 불펜투수들을 새롭게 키워내고 이들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LG의 키포인트이다.



나만의 스토리텔링 선생님 ‘칼럼’

주제별 신문 칼럼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 쌤! 저 알파고 알아요.”

“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아니?”

“ 그게 그러니까 알파고...”

우리는 기억하기 편한 것을 기억한다. 인터넷을 통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에 올라있거나 혹은 TV 뉴스, 프로그램에 수시로 노출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면적 지식들은 쌓여가지만 어느새 그냥 들어본 적 있는 ‘키워드’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즉, ‘알파고’가 요즘 유명하니 아는 것뿐이지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어느 분야까지 들어와 있는지, 인공지능의 미래와 사회적 시선들에 대한 건 내가 알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다. 더군다나 주말까지 학교, 학원, 숙제 등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TV, 인터넷 사용이 사치인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로 남게 된다.



리딩앰 중등 칼럼 수업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시작은 칼럼학습을 위해 계획된 것일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은 이번 주 핫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생활에 관한 깊은 탐구를 자

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중등 리딩앰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약 30~40분 동안 진행되는 이 칼럼 수업에서 이번 주 이슈를 다룬 조선, 한겨레, 국민, 중앙, 동아, 경향 등등 각 주요 신문사의 칼럼을 받은 학생들은 낯선 시사용어 및 어휘를 골라내며 문단별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다. 그 뒤 시사용어 및 어휘에 대해 교사가 해설을 한 후 전체적 내용에 관련된 토론이 이루어진다.

처음 칼럼 수업을 접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 자신이 취약한 부분 예를 들어 정치, 과학 분야에 대한 또 ‘칼럼’이라는 말 자체에 겁을 먹는다. 자신은 이것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기에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피상적인 두려움을 매 수업마다 줄여가다 보면 학생들은 모든 분야의 칼럼을 읽고 사회를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을 키워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어휘력이 강화되며, 글의

구조 파악과 주제문, 근거문장을 찾아내는 훈련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지문에 대한 독해능력이 월등해진다.

우리가 속해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에 대해 짧게 자신의 평을 담은 칼럼은 신문 속에서 ‘나’ 혹은 그 ‘누군가’를 대변한다. 객관적 사실을 최대한 다루려하는 기사보다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룬 칼럼은 기사를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더 흥미롭다. 격하게 동의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가우뚱하며 생각하게 한다. 처음에 칼럼 수업을 단지 학원 수업 중 일부분이라 생각했던 학생들이 하원 후 돌아가면서까지 의문을 품고 집에 가서 “ 쌤 저번 주 칼럼이랑 관련된 그 동영상 보셨어요?”라며 다음 주 수업 때 질문을 이어가거나 오히려 교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칼럼은 리딩앰 수업 중 마지막 부분인 글쓰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논설문에 약한 학생들에게는 내용이 어찌되었건 그 형식과 주장을 이어가는 전체적 흐름을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 좋은 예문이 되어준다. 실제로도 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이런 순차적으로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난 칼럼을 보여주며 원고지에 따라 쓰도록 하면 그야말로 체감학습이 된다.

이론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스펙 뽐뽐한 지식인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나만의 스토리텔링’은 지식을 뛰어넘는 희소성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칼럼을 접하며 낯선 사회 이야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도 그 사회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것을 체감하며 자신의 말을 내뱉는 것이야말로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튼튼한 뼈대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하다.

황다정_책임기와 글쓰기 리딩앰 대전둔산 교육센터 교사





리딩엠은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과 '책읽기와 글쓰기로 올바른 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소통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 바로 리딩엠의 정체성입니다.

리딩엠은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과 ‘책읽기와 글쓰기로 올바른 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소통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 바로 리딩엠의 정체성입니다.



2016년

2016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어린이·청소년 독서활동 부문) 수상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 선정 ‘독서활동매니지먼트지도사자격증 1급, 2급’
YTN 사이언스 청년창업 RUNWAY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리딩엠 편’ 방송

2014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기업 협약서 체결
(주)리딩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월간 경제인 ‘독서교육의 패러다임 제시하는에듀 컴퍼니 (주)리딩엠’ 보도



2013년

소상공인진흥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디자인 R&D 지원 대상사업자 선정
(KIBO/한국기술보존기금) 벤처기업인증(제20130105499호) 획득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독서활동연구소 인정서 획득
KBS1 이규봉, 이지연 아나운서의 <라디오 전국일주> 성공사업장 리딩엠 소개

2012년

<독서이력진단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등록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2011년

한국경제 TV [아이디어발전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는다
중소기업청 ‘이노베이션 스토어’ 선정
EBS 부모60분 방송

2010년

중소기업청 <신사업아이디어 모델 개발 대상업체> 선정

2009년

서울특별시 청년창업프로젝트 우수 아이템 선정



리딩엠 본사 및 각 교육센터

리딩엠 본사 / 02-537-2248
리딩엠 목동본원 / 02-2646-8828
리딩엠 대치직영 / 02-573-2161
리딩엠 서초직영 / 02-537-2248

리딩엠 분당서현 / 031-701-3138
리딩엠 인천송도 / 032-833-3331
리딩엠 대전둔산 / 042-477-1399
리딩엠 캐나다벤쿠버(준) / 778-929-3715



책 읽 기 와 글 쓰 기
리딩엠

발행처 | (주)리딩엠 발행인 | 황종일 편집 | 정 송

디렉터 | 주정봉, 배동섭, 김창윤, 황다정, 이홍범, 백승민, 김대연, 조하정, 김현정, 박선희, 장미선, 차성진, 주성윤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4 아베스빌딩 4층 | TEL : 042-477-1399, 042-488-1399